



광주 광산구, 실버태권도 확대 운영 추진

광주 광산구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실버태권도'를 확대·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

'실버태권도 교실'은 마을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우리마을 상생보존소'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더불어락노인복지관에서 처음으로 운영됐다.

태권도 전문 강사의 지도를 바탕으로 품새와 관절 유연성 운동, 기초체력 강화 운동 등을 진행했다. 올해는 운남권인 더불어락노인복지관에 더해 송정권과 침단권으로 대상 권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광산구태권도협회의 참여로 태권도 품새 수련 및 체력 증진을 위한 스트레칭, 유산소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우선 2월부터 더불어락노인복지관에서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주 2회 실버 태권도 교실 운영을 시작한다. 나머지 2개 권역도 조만간 세부 일정을 확정하고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상철 기자



광산구의회, 중대재해 예방 전 의원 교육

광주 광산구의회는 전날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 역량 강화 교육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

광산구의회는 사회 변화에 따른 정치적 대응 역량과 의정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시로 기획 강연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강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관련 법률 지식 습득과 산업 재해 예방책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현직 노무사가 강사로 참여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이해, 공공부문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방안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김태완 광산구의회 의장은 "산업재해는 구민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기에 각별한 관심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광산구가 올해 신설한 중대재해예방팀을 통해 공공안전 협력 체계 확립에 나선 만큼 각 산업 현장의 근로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제도적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송중기 재혼 소식에 中·日 '들쭉'

한류스타 배우 송중기(38·왼쪽)가 영국배우 출신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39)와 재혼한다는 소식이 지난달 30일 알려지자 외신도 들쭉였다.

특히 송중기가 특히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일본과 중국 언론이 크게 반응했다.

일본의 스포츠지치는 "한국의 인기 배우 송중기가 오래 전부터 교제 소식이 전해진 영국 출신 연인과 이날 자신의 팬클럽 사이트에서 결혼했다고 밝혔다"면서 "옆에서 자신을 응원해 주고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 온 사운더스와 앞으로의 삶을 함께 할 것을 다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송중기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함께 출연한 인기 여배우 송혜교와 2017년 10월 결혼했고 2019년 6월 이혼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여러 일본 매체에서 사운더스에 대한 큰 관심을 표하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중국신랑망(新浪網·시나닷컴)의 연예 전문 사이트인 시나연에는 재혼 소식을 톱뉴스로 전했다. 텐센트뉴스 등 다수의 매체에서 관련 소식을 전했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선 송중기가 실시간 트랜드로 뿔었다.

특히 미국 유력 매체 CNN도 이날 오후 온라인 판에 관련 소식을 전했다.

CNN은 "한국 배우 송중기가 이날 영국 여배우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와 결혼했으며 두 사람이 아이를 기대하고 있다고 송중기의 소속사 하이지움 스튜디오가 당사에 말했다"고 확인했다.

송중기가 이날 팬클럽에 남긴 글도 보도했다. 그러면서 역시 그의 전 부인 송혜교를 언급하며 두 배우가 지난 2019년 이혼을 발표했을 때 수많은 팬들이 놀랐다고 전했다. 두 사람이 2016년 인기 로맨스 TV 시리즈 '태양의 후예'에서 연인으로 출연한 뒤 실제 연애를 시작했고 '송송커플'이라 불렸으며 브래드 피트와 앤젤리나 졸리와 비교되는 아시아 스타 커플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송중기 소속사 하이지움스튜디오는 "두 사람이 법적 부부가 됐다. 결혼식도 따로 올릴 예정이나,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한국과 영국을 오가며 신혼생활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운더스는 임신한 상태다. 하이지움은 "출산 예정일은 사생활이라서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이미 송중기와 사운더스는 200억원대의 이태원동 단독주택에 살림을 꾸렸다. 두 사람은 지난해 봄부터 한남동 빌라에서 함께 산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서부소방, 구급 서비스 향상 지도의사 위촉

광주 서부소방서(서장 문희준)는 31일 김기명 광주한국병원 응급의학과 원장을 서부소방서 구급지도의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사진)

구급지도의사는 구급서비스 품질향상 및 중증환자의 소생을 향상 위해 구급대원의 직·간접 의료지도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응급환자에 대한 구급활동 사항 평가 및 지도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구급활동 중 발생한 민원 및 법률적 문제에 대한 의학적 평가 및 자문 △119구급대 감염관리에 관한 사항 △재난현장 구급대응 훈련 시 사상자 중증도 분류 등 의학적 자문역할을 1년간 수행한다.

이날 위촉장 전수 후 구급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의료기관 미수용 사례 및 구급출동 시 애로사항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참석자들과 교환했다. 김해인 기자



농협 곡성군지부, 선거 공명실천 결의대회

농협곡성군지부(지부장 이철신)는 곡성군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

이날 행사는 금품수수 없는 공명선거 추진을 위해 곡성군선관위가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선거사무 안내 및 위탁선거법 사례 등 입후보설명회를 개최하고, 공명선거 추진 공동 결의식을 가졌다.

농협곡성군지부장은 "부정선거 및 금품선거 근절을 통해 준법 선거를 구현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 설 것"이라며 "관내 조합원과 임직원 모두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광주대, 어린이급식 우수센터 벤치마킹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가 위탁 운영하는 남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최근 하반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경기도 부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벤치마킹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

이번 벤치마킹은 우수센터 견학을 통해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과 각 팀의 현장 실무자와의 질의 사항 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서동주 센터장은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향후 사업 운영 계획과 방향을 신중히 검토하고 관내 어린이 및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전남농협, 에너지절약 ESG 경영실천 다짐

농협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택)는 지난달 30일 본부 2층 대강당에서 에너지 절약 운동을 골자로 한 '전남농협 ESG 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

이날 전남농협은 환경(물 절약·에너지 절약), 사회공헌(찾아가는 농축복지센터·대학생 재능기부·재해복구 봉사활동), 윤리경영(정령농협 구현·익명제보 활성화)에 대한 부문별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실천을 결의했다.

'환경도 야기GO! 건강도 챙기GO!' 라는 슬로건 아래 임직원들이 요일별·시간대별로 계단이용을 장려하는 시간을 정해 계단을 이용하고 텀블러 이용에 동참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진웅 기자

국민가수 김연자, 전남 고향사랑기부제 동행

원조 한류스타이자 '아모르파티', '블링블링'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국민가수 김연자씨가 지난달 30일 전남 고향사랑기부제 동행 응원 릴레이에 나섰다. (사진)

전남도는 향후 등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취지와 참여 방법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전남 고향사랑기부제 동행 응원 릴레이'를 추진하고 있다.

배우 김수미 씨가 선발주자로 나선 가운데 김향식 전 총리에 이어 국민가수 김연자씨가 세 번째로 참여했다.

김연자씨는 "트로트 가수로서 예향 전남과는 특별한 인연으로 이어져 있다"며 "맛과 멋의 고장 전남이 고향사랑기부제와 함께 더욱 발전하도록 힘껏 응원한다"고 밝혔다.

김연자 씨는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 가수 최초로 단독 콘서트를 여는 등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한 원조 한류스타다.

지난 2021년 12월 전남홍보대사로 위촉돼 전남 방문의 해, 남도음식문화큰잔치 등 전남 홍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전남도는 기부금 담례품으로 전남의 매력이 담긴 다양한 농수축산 특산품을 비롯해 천연염색, 순천만국제정원



박람회 입장권 등 체험·관광상품을 증정하고 있다.

올 1월 본격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담례품을 받을 수 있고,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사랑e음(lovegohyang.go.kr) 시스템과 농협은행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뉴시스